

중국 도시 노인의 노후 상황에 따른 주거 선호 변화 연구

A Study on Changes of Residential Preferences among Older People Living in Urban China according to Aging Situation

김미라*
Jin, Meiluo

이연숙**
Lee, Yeunsook

Abstract

As China has the largest number of elderly people in the world, the issue of the aged people has been a serious matter of concern in Chinese government and society and many studies have been done so far. However, the studies about the dwellings of the aged people that support their basic life are still insufficient. For this reason this study intends to identify the differences in elderly people's preferences according to their situations in aged life. This study surveyed 152 elderly residents aged 50 and over including early aged people in Beijing China about their residential preferences (types of residence, location of residence, size of residence, types of ownership) according to the four types of their situations in aged life, healthy couple, sick couple, healthy single and sick single. The survey conducted from 2013 April 10th to 15th.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as the elderly situation became worse, preference for the independent residence decreased very rapidly while the preference for the elderly welfare facilities dramatically increased from the 0 point of the healthy couple and the preference for the elderly welfare facilities marked the highest point in case of the worst situation of sick single. Secondly, among the four different situations preferences for the urban residence were the highest and as the aged people's situation becomes worse, their preferences for urban life increased. Thirdly, healthy couple preferred a large size residence but as their elderly situation becomes worse, their preferences for the large size decreased and their preferences for small size increased dramatically, and in case of elderly singles, preferences for small size residence exceeded their preferences for large size residence. Fourthly, as elderly situation became worse preference for owning residence decreased and preference for rental residence increased and in case of the worst situation of sick single, preference for rental residence was higher than their preferences for their own residence. With this view of point, the residential preference of elderly people changes along with their aging situations. Thus,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 variable aging market, and develop a variety of aging residence which, can satisfy the different groups of elderly.

Keywords : Elderly in China, Residential Preference, Aging Situation

주요어 : 중국 고령화, 주거 선호, 노후 상황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또한 심각한 고령화를 겪고 있다. 중국 통계국에 의하면 중국

은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부양의식의 변화, 인구의 유동, 그리고 핵가족화 등 사회적 변혁과 독신자녀 정책으로 말미암아 중국의 고령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사회주의 국가 체제로 중국 특유의 노인문제를 갖고 있다.

2011년 중국 정부는 중국 고령 사업 발전 '12.5' 기획 [中國老齡事業發展 '十二五' 規劃]을 반포하여 "재가를 기본으로, 지역 커뮤니티를 의탁으로, 복지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양로 서비스 시스템을 건립하고, 재가 양로와 지역 커뮤니티 양로 서비스 네트워크를 기본적으로 보급한다."를 발전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가족성원과 노인의 공동생활 혹은 근린 거주를 격려하였다. 하지만 이는 단지 서비스·정책 등 방면에서 중국의 고령화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을 뿐, 실질적인 노인의 삶을 지지하고 있는 주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없었다.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인주거 연구를 보면 아직 시작단계에 있으며, 노인주거

*정회원(주저자),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석사과정

**정회원(교신저자),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Yeun-Sook Lee, Dept. of Interior Architecture & Built Environment, Yonsei Univ., Room 418 Samsung Hall, Korea
E-mail: yeunsooklee@yonsei.ac.kr

본 논문은 2013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08-0061908).

본 논문은 2013년 one conference seoul 2013 국제 학술대회에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연구임.

선호에 대한 연구 또한 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에 따라 역동적인 변화를 보이는 시기이며, 상황이 변함에 따라 주거 선호 또한 부동한 양상을 띠고 있다(Oh, 1993).

이에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주된 연구방법으로, 중국 노인이 선호하는 주거환경특성을 상황별로 파악함으로써 중국의 노인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문헌고찰

1. 중국의 고령화 현황

중국 통계청에 의하면 2012년 말까지 중국 대륙의 인구는 13억 5404만 명이고 그중 65세 이상 인구는 1억 271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9.4%를 차지한다. <Table 1>은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의 노인인구수이다.

Table 1. Number of Elderly People Aged 65 or Over in China for 1999-2012

Year	Population (ten thousand)	%	Year	Population (ten thousand)	%
2012	12714	9.4	2005	10055	7.7
2011	12288	9.1	2004	9857	7.6
2010	11883	8.87	2003	9692	7.5
2009	11309	8.5	2002	9377	7.3
2008	10956	8.3	2001	9062	7.1
2007	10636	8.1	2000	8821	7.0
2006	10419	7.9	1999	8679	6.9

Source. 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2010年中國統計年鑒

중국은 1999년 말 8679만 명 인수로 고령화사회에 들어섰으며, 2005년에 노인 인구수가 1억 명을 넘어섰다. 최근 2년간 증가한 노인 인구수는 850만 명으로, 2013년 예상하고 있는 한국의 전체 노인인구수인 600만 명을 훨씬 초과한 수치이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2030년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1억 37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며, 2050년에는 2억 31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외에도 1970년 실시된 독신자녀 산아제한 정책으로 중국은 중국 특유의 공소¹⁾ 노인과 독신 자녀 가족 양로 문제가 존재한다.

2. 중국의 노인주거 정의 및 유형

중국의 노인주거의 정의나 분류된 유형을 보면 노인주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한 현황이며 노인주거 유형의 분류 또한 모호한 상황이다. 노인가파트를 보더라도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주택을 노인가파트라고 부르거나, 시설 환경이 보다 좋은 경로당과 양로원을 노인가파트라고 부르기도 한다.

노인 건축 설계규범[老年人建築設計規範]에 의하면 노인 건축 즉 노인주거는 노인이 장기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봉양[經濟供養], 생활의 케어[生活照料] 정신적 위안[精神慰藉] 등 3가지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주 장소이다. 여기에는 노인주택, 노인가파트, 노인원(양로원) 및 탁노소가 포함되며 보통의 주택 중 노인이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부분도 포함된다.

노인 사회 복지 시설 기본 규범(2001)에 의하면 노인 복지 시설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식사와 거처, 위생, 일상 생활 케어, 건강관리와 문화·체육·엔터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서비스 시설이다. 여기에는 노인 사회 복지원(Social Welfare Institution for the Aged), 양로원(Home for the Aged), 노인 아파트(Hostels for the Elderly·Apartment for the Aged), 양호홈(Home for the Device-aided Elderly), 요양원(Nursing Homes), 경로당(Homes for the Elderly in the rural Areas), 탁노소(Nursery for the Elderly), 노인 서비스센터(Center of Services for the Elderly) 등이 있다.

3. 중국의 노인주거 선호 연구 현황

<Figure 1>은 WAN FANG DATA에서 제공한 연구 트렌드 분석 그래프²⁾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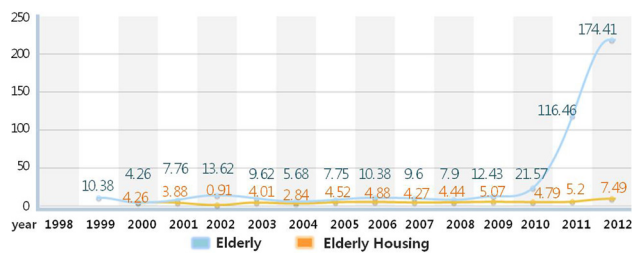


Figure 1. Trend Analysis about the Elderly & Elderly Housing
Source. Wanfang Data, 2013

그림에서의 수치는 일 년 동안 발표한 백만 편의 게재 논문 중 관련주제 논문의 발표 개수이다. 그래프를 보면 중국에서 노인에 대한 연구는 1999년 중국이 고령화사회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 추세는 1999년으로부터 2009년 까지 매년 평균 9.0편으로 발표되다가 2010년에 23.44편, 2011년 118.35편, 2012년에는 218.89편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노인에 대한 중국 사회의 관심정도가 2010년 이후 퇴직연금, 노인복지시설의 부족, 실독 가정³⁾ 등 각종 노인문제가 사회의 이슈로 되면서 3년 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 추세에도 노인주택에 대한 연구는 2000년 4.26편으로부터 2011

1) 공소[空巢, empty nest]: 자녀를 출가시키고 부부만 남은 가구를 말한다.
2) 연구 트렌드 분석 서비스[知識脈絡分析服務, Knowledge Trend Analysis Service]: 곡선으로 연도별 관련 정보의 트렌드 변화를 보여준다. <http://trend.wanfangdata.com.cn/>
3) 실독 가정[失獨家庭]: 외동 자녀를 잃은 가정을 말한다.

년 5.25편, 그리고 2012년 9.06편으로 노인에 대한 연구가 대폭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노인주택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 지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중국학술정보원 CNK 사이트에 '노인'을 키워드로 연구의 카테고리를 살펴본 결과 진행되고 있는 노인 연구의 대부분이 노인의 신체 건강, 정신 건강, 노후 생활 및 여가 그리고 노인 정책, 제도 및 서비스 등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노인 주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적었다. 또한 건축과 주거환경 카테고리에서 다루고 있는 노인주거 연구는 단지 노인 주택에 대한 정의와 외국에서 진행되거나 성공한 사례 소개가 대다수로 노인주거의 선호에 대한 연구는 적었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는 중국 학술정보원 CNKI 사이트에서 '노인'을 키워드로 하고, '환경 과학 및 자원 이용[環境科學與資源利用]', '건축 과학 및 공경[建築科學與工程]', '사회학 및 통계학[社會學及統計學]' 등 주제 분류를 선택하였으며 게재 논문[核心期刊]을 중심으로 논문을 추출하였다. 결과 1,252편의 논문 중 주거 선호와 연관이 있는 논문 8편을 추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Chen(2010)은 2010년 이전에 중국에서 진행된 노후의 의향 즉 주거 선호에 대한 연구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종합하였다. 첫째, 노인의 생활 현황과 양로 의향에 대한 기술; 둘째, 노인의 양로 의향과 그 영향 요소에 대한 분석이다.

총체적인 노인 주거 선호에 대한 선행 연구를 보면, 첫째로 주거 선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었으며, 독립적인 연구 체계를 이룬 것이 아니라, 주거 선호[偏好], 수요[需求] 또는 양로 의향[意向]에 내재되어 표현되고 있었다. 둘째는 주거 선호 연구는 노후를 보내고 싶은 장소(집·노인복지시설)와 거주 방식(가족동거·가족별거)에 대한 선호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었다.

추출한 8편의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 張震(2001), Wang(2002) 선호하는 주거방식을 자녀동거와 자녀별거로 나누었고; 丁煜 & 葉文振(2001), 王洪娜(2011)은 노인복지시설 입주 여부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으며; Wang & Zhao(2007)는 주거방식을 독거, 부부동거, 자녀동거, 타인동거, 양로원 입주로 나누어 주거선호를 연구하였고; 郭志剛(2002)은 주거방식을 독거, 자녀도거, 타인동거, 시설입주로 나누었으며; Chen(2010)은 자녀동거 여부와 시설입주 여부로 나누었으며; Ma & Zhou(2011)은 재가양로 선호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방식을 종합하면 중국에서 진행되는 노인의 주거 선호는 독거, 자녀동거, 노인복지시설 입주로 분류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행 연구의 노후 주거 선호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연구의 목적과 연구 대상자가 다름에 따라 주거 선호에 대한 조작방법도 일치하지 않았고 그 결과도 부동하다. 연구결과 노인의 주거 선호에 영향 주는 요소로는 성별, 나이, 혼인 상황, 건강상황, 경제상황, 주거위치, 교

육정도, 직업, 자녀 수, 자녀와의 동거여부 등이 있으며 대체적으로 농촌거주 주민이 도시거주 주민보다 자녀동거를 더 선호하고, 독신이고, 자녀가 많으며, 건강이 나쁘고, 나이가 많을수록 자녀와의 동거를 더 선호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도시에 거주하고, 자녀가 적으며, 나이가 많고, 경제능력이 높으며, 교육정도가 높은 응답자일수록 노인복지시설 입주를 더 선호하였다. 가족동거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보았을 때 대체적으로 경제적 독립이 제일 큰 작용을 하고 그다음으로 건강이었다.

4. 한국의 노인주거 선호 연구 현황

한국 통계청에 의하면 전통 유가 사상의 영향을 받고 중국과 비슷한 문화권에 있는 한국은 중국과 비슷한 시기인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다. 하지만 중국과 달리, 한국은 1960년대부터 노인에 대한 연구를 학문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으며 1968년 대한노인병학회 창설, 한국노인문제연구소와 1980년 한국노년학회가 창립되면서 노인관련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노인주거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노인주거의 현황 및 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와 물리적 환경 계획에 관한 연구 등이 실시되어 왔으며, 노인의 주거환경 요구를 포함하여 가계 경제, 노후 생활, 건강 및 경제 활동, 생활환경 등의 생활 전반에 걸친 욕구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등 특히 미래 수요자의 입장에서 계획에 필요한 주 요구를 파악하는 선호도 연구 및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는 연구가 다방면으로 깊게 진행이 되어왔다.

이 중 노년기는 다른 시기 못지않게 중요하고 긴 기간으로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에 따라 역동적인 변화를 보이는 시기이므로 노년기를 하나의 일관된 단계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노년기의 상황적 특성에 따라 노인주거욕구를 보다 역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논문들이 있다. 여기에는 노년기를 건강상태 등의 상황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보는 것이 특히 건축 계획 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선행연구(Ko, 1990; Park, 1990)와 부부동거상태와 건강상태 요인이 노인주거 특성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한 Oh(1992)의 연구 결과가 있었으며 그 외에도 노년기 상황에 따른 주거 선호를 조사한 연구에는 Oh & Lee(1993), Lee et al.(1999), Jo & Lee(2005), Kim(2006), Hwang(2010) 등의 연구가 있다.

이러한 노년기의 상황에 따른 주거선호 연구를 보면 노년기를 부부가 동거하면서 건강한 상황, 부부가 동거하면서 1명 이상이 아픈 상황, 혼자 살면서 건강한 상황, 혼자 살면서 아픈 상황 등 4가지 상황으로 나누었으며 각의 상황에서의 주거선호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거선호의 종속변인으로는 주택위치, 주거유형, 주택규모, 자녀 집과의 거리, 소유방식, 계획주거 이주 의향 등이 있었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북경에 거주하고 있는 예비 노인을 포함한 50대 이상 응답자 152명이다. 조사대상은 중국 북경시 조양구[朝陽區], 해진구[海澱區]와 대흥구[大興區]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국한하였으며, 예비은퇴자를 포함한 50대 이상으로 한정하였다. 북경시는 중국에서 두 번째로 노인 인구가 많은 도시이다. 2012년 말까지 북경시 60세 이상 호적 노인 인구는 북경 총 인구의 20.3%를 차지⁴⁾하여 노인 연구 대상지로 적합하다. 또한 북경은 인구 유동률이 가장 높은 도시로서 지역별 차이가 큰 중국을 대표할 수 있으며, 이미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대도시로써 겪은 각종 문제 또한 중국이 미래에 직면하여야 할 도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을 50대 이상으로 국한한 것은 중국의 법정 퇴직 연령이 남성은 60세이고 여성은 55세이므로 50대 이상부터 예비 은퇴자로 여기기 때문이다.

2. 조사방법 및 분석방법

본 조사는 2013년 4월 10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었고, 총 3명의 조사인원이 참여하였으며, 1:1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인터뷰 시 응답자들한테 현재의 건강 상황과 배우자 유무 상황을 막론하고 가상의 4가지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선호하는 주거특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현재 싱글인 응답자도 과거 경험했거나 혹은 미래의 상황이라는 가정 하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결과 회수한 157부의 설문지 중 최종 15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통계 방법으로 빈도분석을 진행하였다.

3. 조사도구

선행연구는 중국의 권위적인 학술 사이트인 중국학술정보원 CNKI와 WANFANG DATA를 이용하였으며 문헌조사를 통하여 중국의 고령화 현황과 노인 주거 선호 연구 현황과 노인주택 현황을 조사하였다. 한국의 노인주거 선호 선행연구는 노인 주거와 주거 선호를 키워드로 한국 학술정보사이트 RISS에 등록되어 있는 석·박사 학위논문과 게재논문을 위주로 조사하였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중국은 노인 주택 연구가 아직 시작 단계에 있는데 비해, 한국의 노인 주거 연구는 다방면으로 심도 있게 진행되었으며 노인 주거선호에 대한 연구는 한 단계 더 발전되어 노년기를 하나의 일관된 단계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노년기를 4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문항을 추출하고 여기에 중국 실정과 연구 동향에 입각하여 새로운 문항을 구성하였다.

중국 노인의 주거환경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기초한 노인상황을 부부가 동거하고 건강한 상황, 부부가 동거하고 한명 이상이 아픈 상황, 혼자 살고 건강한 상황, 혼자 살고 아픈 상황 등 4가지 상황으로 나누었으며, 각각의 상황에서의 선호하는 주거환경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종속 변인으로는 가구형식, 주택위치, 주택규모, 소유방식 등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직업 유무, 주 수입원, 월간 총소득 등 사회학적 특성에 대해 문항을 구성하고 가구특성인 자녀 수, 자녀 집과의 거리, 가구형식 등에 대하여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주거특성은 주택규모와 주택소유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입주 여부로 하였다. 구체적인 조사도구의 문항 구성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General Contents of Questionnaire

Classification	Questionnaire Composition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Gender, Age, Spouse, Job, Source of Income, Monthly Income
Family Characteristics	Households, Number of Children, Residential Distance with Children
Residential Characteristics	Residence Size, Residence Tenure Type
Residential Preference	Households, Residence Location, Residence Size, Residence Tenure Type, Want to Move into Elderly Residential Facilities

IV. 결과분석

1. 조사대상자의 특성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3>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42.1%, 여자가 57.9%를 차지하였으며 연령은 60대가 48%로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50대가 30.9%를 차지하며, 70대 미만이 전체 응답자의 78.9%를 차지함으로써 응답자의 다수가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으로 나타났다. 싱글은 30명으로 19.7%를 차지하였으며 80.3%가 기혼이다.

조사대상자의 90.1%가 무직인데 이는 중국의 법정 퇴직연령(여성 55세, 남성 60세)을 기준으로 여성 응답자의 91%가 56세 이상이고, 남성 응답자의 81.3%가 60세 이상이기 때문이다.

주 수입원은 79.6%가 퇴직금·연금이며, 11.2%는 자녀의 지원이며, 7.2%가 노동수입이다. 즉 86.8%가 독립적인 수입원이 있다. 월간 총 수입은 2000~2999위안이 27%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4000위안 이상이 25%로 두 번째로 많고 그 다음으로 3000~3999위안이 18.4%를 차지한다. 중국의 평균 퇴직 연금인 1720위안과 비교해보면 응답자의 70.4% 이상이 전국 평균 수준보다 높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대다수가 비교적 경제적으로 독립적임을 알 있다.

4) 북경시 2012년 노인 인구 정보 및 고령사업 발전 상황 보고서(北京市2012年老年人口信息和老齡事業發展狀況報告)

Table 3.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152

Variables	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64	42.1
	Female	88	57.9
	Total	152	100.0
Age	50's	47	30.9
	60's	73	48.0
	70's	30	19.7
	80's	2	1.3
	Total	152	100.0
Spouse	Single	30	19.7
	Married	122	80.3
	Total	152	100.0
Job	Yes	15	9.9
	No	137	90.1
	Total	152	100.0
Source of Income	from Work	11	7.2
	from Children	17	11.2
	Pension	121	79.6
	Others	3	2.0
	Total	152	100.0
Monthly Income	under 1000 yuan (under 174,000 won)	18	11.8
	1000~1999 yuan (174,000~under 348,000 won)	27	17.8
	2000~2999 yuan (348,000~under 522,000 won)	41	27.0
	3000~3999 yuan (522,000~under 696,000 won)	28	18.4
	over 4000 yuan (over 696,000 won)	38	25.0
	Total	152	100.0

Note. at the exchange rate of 1 yuan=174 won

2) 조사대상자의 가구 특성

조사대상자의 가구 특성은 <Table 4>와 같다.

가구구성은 응답자의 9.2%가 싱글이고 독거하고 있으며, 45.4%가 부부 동거이고, 13.2%가 싱글이고 자녀와 동거하고 있으며, 31.6%가 부부이며 자녀와 동거하고 있다. 그리고 0.7%가 부부와 자녀 및 친척과 동거를 하고 있다. 즉 응답자의 77.7%가 현재 부부가 동거하고 있고, 45.4%는 자녀와 동거하고 있다.

자녀수가 한 명인 응답자는 61명으로 40.1%를 차지하였으며 2명이상이 59.2%를 차지한다. 자녀가 없는 1명을 제외한 151명의 응답자 중 자녀 집과의 거리를 보면 45.0% 자녀와 동거하고, 31.8%가 같은 도시에 살면서 별거하며, 23.2%가 다른 도시에 거주하며 별거한다.

3) 조사대상자의 주거 특성

조사대상자의 주거 특성은 <Table 5>와 같다.

주택소유를 보면 48.7%가 자녀 소유의 집에 거주하고, 다음으로 46.1%가 자가에 거주하며, 임대에서 거주하는 응답자는 5.3%를 차지한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절반 정도가 주거를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4. Family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152

Variables	Classification	N	%	
Households	Single (Only)	14	9.2	
	Couple (Only)	69	45.4	
	Single with Children	20	13.1	
	Couple with Children	48	31.6	
	Couple, Children, and Relative	1	0.7	
Total		152	100.0	
Number of Children	0	1	0.7	
	1	61	40.1	
	2	67	44.1	
	over 3	23	15.1	
	Total	152	100.0	
Residential Distance with Children	Cohabitation	68	45.0	
	Live Separated in the Same City	48	31.8	
	Live Separated in the Different City	35	23.2	
	Total		151	100.0

주택규모를 보면 59.2%가 90 m² 이상에 거주하고 있었고, 29.6%가 76-90 m²의 규모에 거주하고 있었다.

현재의 노인복지시설 입주 여부를 보면 응답자의 50%가 입주 의향이 있고 대답했다. 이는 노인복지시설 입주 여부를 연구한 Wang & Zhao(2007)의 32.6%와 Chen (2010)의 24.6%보다 높은 높음을 알 수 있다.

Table 5. Residenti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152

Variables	Classification	N	%
Residential Tenure Type	Self Owned	70	46.1
	Children Owned	74	48.7
	Rent	8	5.3
	Total	152	100.0
Residential Size	under 60 m ²	2	1.3
	61-75 m ²	15	9.9
	76-90 m ²	45	29.6
	over 90 m ²	90	59.2
	Total	152	100.0
Want to Move into Elderly Residential Facilities	Yes	76	50.0
	No	76	50.0
	Total	152	100.0

2. 조사대상자의 노후상황별 주거 선호

응답자의 노후상황별 주거 선호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부동거, 부부아파트, 혼자건강, 혼자아파트의 4가지 상황을 제시하였고 각 상황에서의 주거환경특성인 가구형식, 주택 위치, 주택규모, 소유방식에 대하여 조사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가구유형에 대한 선호

독거 혹은 부부동거, 자녀동거, 노인복지시설로 구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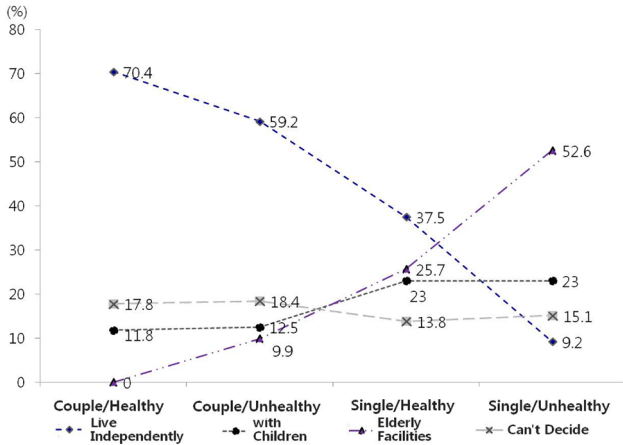


Figure 2. Preference of Households according to Aging Situation

였으며 그 결과는 <Figure 2>와 같다.

부부가 동거하고 건강할 때 독거 혹은 부부동거에 대한 선호는 70.4%로 제일 높았고 다음으로 자녀동거의 11.8%이며 복지시설에 대한 선호는 0%로 부부가 동거하고 건강할 때 자녀와의 동거 보다 부부만의 독립적인 삶을 원하며 복지시설에 입주하기를 꺼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부가 아플 때 부부동거에 대한 선호는 59.2%로 줄었고, 자녀동거에 대한 선호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선호는 9.9%로 증가하였다. 이는 부부가 건강이 악화 되었음에도 대부분이 독립적인 공간을 원하며, 노인복지시설에 입주함으로써 자녀한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 하는 성향을 볼 수 있다. 독신이고 건강한 경우 독거에 대한 선호는 37.5%로 감소하였으며, 반대로 자녀동거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선호는 각각 23%와 25.7%로 증가하였다. 독신이며 아플 때 노인복지시설 선호가 52.6%로 제일 높았고 다음으로 자녀와 동거 선호는 23%이며 독거 선호는 9.2%로 제일 낮았다.

가구유형에 있어서 부부동거에 대한 선호는 응답자의 상황이 열악해짐에 따라 현저히 감소하였고, 반면 복지시설에 대한 선호는 상황이 열악해짐에 따라 상당히 증가하여 제일 열악한 상황에서 복지시설에 대한 선호가 독거의 5.7배, 자녀와 동거 선호의 2.3배로 되었다. 자녀동거에 대한 선호는 건강상황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부부인 상황으로부터 독신으로 됨에 따라 2배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노인이 열악한 상황에 진입하면서 독거와 부부동거에 대한 선호는 급격히 줄어들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선호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제일 열악한 상황에서 복지시설에 대한 선호가 제일 높았다. 자녀에 대한 선호는 부부가 독신으로 되면서 증가하였는데 이는 노인이 독신이 되면 자녀와 노인복지시설과 같이 누군가에게 의존하려는 성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의 노인복지시설의 입주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0%가 노인복지시설 입주를 원한다고 대답한 결과와 비교할 때 노인복지시설의 입주여부는 상황이 제

일 열악한 독신이고 아픈 상황에서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Lee et al.(1999)가 언급한 노년기를 하나의 동질적인 시기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단계의 이질적이고 복합적인 생애단계로 간주하여야 하며 주거 선호를 연구함에 있어서 상황별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2) 주택위치에 대한 선호

지리적 위치는 도시, 교외, 농촌으로 구분하였으며 선택을 못할 시 결정 못함으로 처리하였다. 그 결과는 <Figure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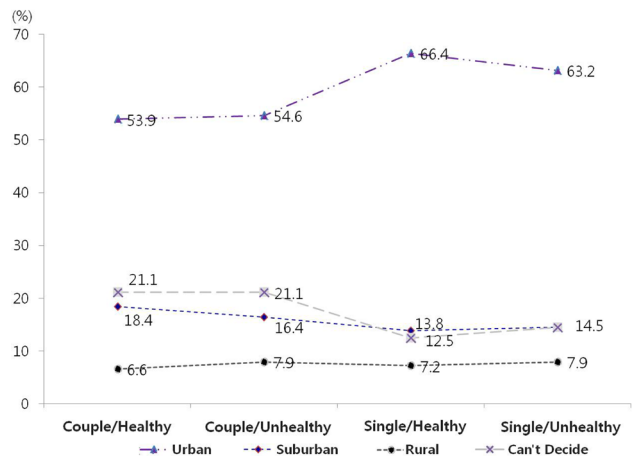


Figure 3. Preference of Residential Location according to Aging Situation

주택위치에 대한 선호는 노후의 4가지 상황을 막론하고 대체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도시에 대한 선호가 제일 높았고 그 다음으로 교외와 농촌이다. 이는 인터뷰가 북경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또한 전체적인 선호는 건강할 경우와 아플 경우 모두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즉 주택위치에 대한 선호는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동거인 상황에서 혼자가 되었을 때 처한 상황에 따라 선호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도시에 대한 선호는 부부가 동거할 때의 54.6%로부터 혼자인 상황으로 되면서 66.4%로 증가하였다. 반면 교외에 대한 선호는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18.4%로부터 13.8%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가 독신으로 되면서 한정하고 경치가 좋은 교외보다는 인구가 밀집되고, 사회생활이 풍부하며, 자녀가 살고 있는 도시에 거주하려는 성향을 볼 수 있다. 농촌에 대한 선호는 상황이 열악해짐에도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고 전체의 8% 미만이었다. 이는 중국의 도시와 농촌 사이의 사회경제적 차이로 사람들이 농촌을 나후되고 의료 등 모든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노후에 살기 적합하지 않는 곳으로 여기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절반 이상의 도시거주 응답자가 노후상황의

악화에도 도시를 더 선호하며 부부동거로부터 혼자로 되었을 때 도시를 더 선호함을 알 수 있다.

3) 주택규모에 대한 선호

주택규모는 60 m² 이하, 61~75 m², 76~90 m², 90 m²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ure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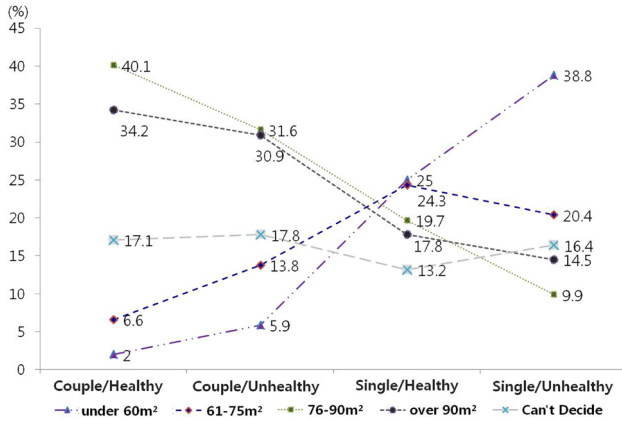


Figure 4. Preference of Residential Size according to Aging Situation

주택규모에 대한 선호는 상황에 따른 양상을 보이며, 부부가 동거하고 건강할 경우에는 40.1%가 76~90 m² 사이의 주택을, 건강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31.6%와 30.9%가 76~90 m²와 90 m² 이상을 선호하였고, 혼자 독거하고 건강할 때에는 25.0%와 24.3%가 60 m² 이하와 61~75 m²를 선호하고, 건강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38.8%가 60 m² 이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가 동거인 경우 76 m² 이상의 큰 규모를 선호하지만 독거인 상황에서 75 m² 이하인 규모를 더 선호하였다.

주택규모가 60 m² 이하에 대한 선호는 부부가 동거하면서 건강할 때 2%로 제일 낮았지만 건강이 악화되면서 5.9%로 증가하고, 독신으로 되면서 4배 증가한 25%로 되었으며 제일 열악한 상황에서 38.8%로 증가하여 부부가 동거하고 건강한 상황의 19.4배로 되었다. 76~90 m²에 대한 선호는 부부가 동거하면서 건강할 때 40.1%로 제일 높았지만 건강이 악화되면서 31.6%로, 부부가 독신이 되면서 19.7%로 감소하였으며 제일 열악한 상황에서는 9.9%의 선호를 나타냈다. 즉 노인이 열악한 상황에 진입할수록 큰 규모보다 더 작은 규모의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부부가 독신이 되면서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는 신체의 노화와 배우자의 부재로 작고 유지관리가 편리한 주택을 필요로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90 m² 이상 규모에 대한 선호는 상황이 악화되면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제일 열악한 경우 응답자의 14.5%가 선호하는 것으로 보아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더 크고 좋은 집에 거주하려는 성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부부가 동거하는 상황에서는 큰 규모의 주택을 선호하지만 독신이 되면서 작은 주택을 더 선호하며, 또한 작은 주택에 대한 선호는 노인이 상황이 열악해 질

수록 극적으로 증가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에도 큰 규모에 대한 일정한 선호는 계속 존재한다.

4) 소유방식에 대한 선호

소유방식은 자가와 임대로 구분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ure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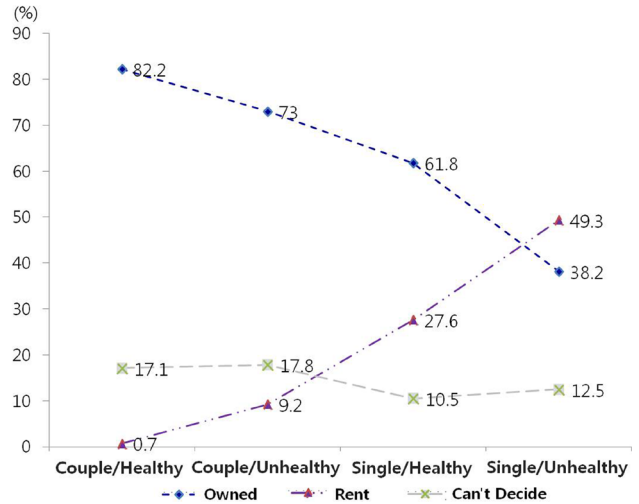


Figure 5. Preference of Residential Tenure Type according to Aging Situation

부부가 동거하면서 건강할 때 응답자의 82.2%가 자가를 선호하였으며 0.7%가 임대를 선호하였다. 부부의 상황이 열악해지자 자가에 대한 선호는 73%로 줄어들고 임대에 대한 선호는 9.2%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상황이 열악해짐에도 지속되었으며 부부가 독신이 되었을 때 응답자의 61.8%가 자가를, 27.6%가 임대를 선호하였다. 제일 열악한 상황인 독거이고 아플 때 자가에 대한 선호는 38.2%로 감소하여 임대의 49.3%보다 낮았다. 이때 자가에 대한 선호는 동거이고 건강할 때의 2분의 1로 줄었으며 반면 임대에 대한 선호는 49.3%로 70배 증가하였다. 이는 상황이 열악해짐에 따라 소유의식이 줄어드는 반면 임대의 의사가 많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부가 동거하고 독신이면서 건강한 세 가지 상황에서 자가에 대한 선호가 각각 82.2%, 73%, 61.8%로 높은 것으로 보아 중국인들이 높은 주택 소유의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제일 열악한 상황을 제외한 상황에서 자가를 더 많이 선호하였으며, 응답자의 상황이 열악해짐에 따라 자가에 대한 선호는 줄어드는 반면 임대에 대한 선호는 극적으로 증가하였다.

V. 결 론

본 연구를 위해 미래의 노후 상황을 부부가 동거하고 건강한 상황, 부부가 동거하고 한 명 이상이 아픈 상황, 혼자 건강한 상황, 혼자 아픈 상황 등 4가지 상황으로 나누었고 각 상황에서의 중국인의 주거 선호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4가지 상황에서 선호하는 주거특성에 대하여 15-21%의 응답자가 결정을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중국의 노인들이 아직 노후계획을 진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거나, 노후계획을 함에 있어서도 주체적이지 않고 자녀 등 주위의 환경에 의존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주거 선호는 건강이 악화보다는 부부동거인 상황으로부터 혼자인 상황으로 진입함에 더 큰 변화를 보였다.

둘째, 선호하는 가구유형은 상황이 열악해짐에 따라 독립거주에 대한 선호는 급속히 감소하는 반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선호는 부부가 건강할 때로부터 극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자녀동거에 대한 선호도 상황이 나빠짐에 따라 2배 정도로 증가하였다. 즉 부부가 건강한 상황에서 독립거주를 선호하지만 상황이 악화됨에 노인복지시설과 자녀동거를 선호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셋째, 선호하는 주택위치는 4가지 상황에서 도시에 대한 선호가 제일 높았으며 상황이 열악해짐에 따라 증가하였지만 교외와 농촌에 대한 선호는 낮고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넷째, 선호하는 주택규모는 부부가 건강한 상황에서는 중간 규모와 큰 규모의 주택을 선호하던 데로부터 상황이 열악해짐에 따라 큰 규모와 중간 규모에 대한 선호가 줄어들고 작은 규모에 대한 선호가 극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제일 열악한 상황인 혼자 아픈 상황에서는 작은 규모에 대한 선호가 제일 높았다.

다섯째, 선택을 하지 못한 응답자를 제외했을 때, 부부가 건강한 상황에서 임대를 선호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가 자가로 선호하였다. 하지만 상황이 열악해짐에 자가에 대한 선호가 줄어들고 반면 임대에 대한 선호는 극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제일 열악한 혼자이고 아픈 상황에서 임대에 대한 선호가 자가보다 높았다.

결론적으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구학적 변화가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금, 중국은 상당한 규모의 노인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문제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전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노후 기간은 길어지고 있으며 노인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의 노화와 배우자를 잃는 등의 경험을 하게 된다.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면 주거에 대한 요구도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하지만 현존하고 있는 노인주택은 여러 노화 단계 및 계층의 노인들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북경, 상해, 광주 등에서 유행하고 있는 노인을 위한 주택 개발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은 대체로 경치가 좋은 교외에 자리 잡고 있으며 주로 별장과 고급 노인아파트이며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복지 시설은 저소득층이고 아픈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주택 시장은 노인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하며 여러 노인층의 주거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노인주택을 개발하여야 한다.

REFERENCES

- Chen, J. L. (2010). Desires for Old-age Support of the Empty Nest Elderly and its Influencing Factors: An Empirical Research Based on the Survey in Suzhou. *Population & Development*, 16(2), 67-75.
- Hwang, S. (2010). *Preference of elderly housing arrangement according to aging situation by baby boomers*. M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Jo, S., & Lee, T. (2005). Preference of Residential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Old Age of Pre-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16(4), 9-16.
- Kim, M. (2006). The Preference of Housing for the Elderly among the Middle-aged Households for Aging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17(1), 117-126.
- Ko, S. (1990).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Planning and Design of Long-term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PhD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Lee, Y., Lee, S., Park, J., & Byeon, H. (1999). Preference of Future Elderly Housing Options According to Aging Situation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19(2), 147-158.
- Ma, Z. D., & Zhou, G. W. (2011). Supports for the Elderly under the Market Transition in China. *Population Research*, 35(3), 17-28.
- Oh, C. (1992). *Elderly Housing Model based on the Preference of Middle Aged Housewives*. PhD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Oh, C., & Lee, Y. (1993). Preferred Characteristics of Elderly Housing Depending on Four Aging Situation.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9(2), 35-45.
- Park, T. (1990). *A Study on the Integrated Community Cate Type Planned Housing Model for the Elderly Peoples' in Korea*. PhD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 Wang, J. P. (2002). The Study on the Living Style of the Aged People in Cities. *City Planning Review*, 26(3), 53-55.
- Wang, S. X., & Zhao, Z. W. (2007). Parent Care in the First One-Child Generation Families: A Case Study of Beijing. *Population & Economics*, 4, 52-58.
- 丁煜, & 葉文振 (2001). 城市老人對非家庭養老方式的態度及其影響因素. *人口學刊*, 2, 22-28.
- 郭志剛 (2002). 中國高齡老人的居住方式及其影響因素, *人口研究*, 26(1), 37-42.
- 王洪娜 (2011). 山東農村老人入住養老機構的意願與需求分析. *東嶽論叢*, 32(9), 169-173.
- 張震 (2001). 中國高齡老人居住方式的影響因素研究. *中國人口科學*, S1, 71-77.
- Statics China.
- Statics Korea.
- Wanfang Data.

접수일(2013. 11. 23)
수정일(1차: 2013. 12. 31)
게재확정일자(2014. 1. 22)